

통도사에서 한 달간 매일 선지식 만나요

11월 25일~12월 24일 화엄산림법회

우리 시대 큰스님 30명으로부터 매일 <화엄경> 법문을 듣는 법석이 열린다. 통도사(주지 원산)는 11월 25일~12월 24일 화엄산림법회를 봉행한다.

25일 영축총림 방장 원명 스님의 입재법문으로 시작되는 행사에는 조계종 원로의 원 월과 스님, 해인사 율주 종진 스님, 화엄사 회주 각성 스님,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 탄허재단 이사장 해거 스님, 조계종 前 교육원장 무비 스님 등이 법문한다.

특히 행사에서는 참가대중이 함께 매일 <화엄경>을 응호하는 신중의 명호를 외며, <화엄경>의 정수라 일컬어지는 보현행원품 독송과 108예침이 있어 법문과 실수행을 겸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화엄산림의 '화엄'은 경전의 제명을 줄인 것이고, '산림'은 '摧折人我山 長養功

德林' (나다 너다 하는 아만심을 꺾어 없애고 공덕의 숲을 키워 나가는 것)에서 따온 말로써 화엄경을 설하는 법회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

화엄법회는 신라시대부터 있어왔으나, 현재의 화엄산림법회는 경봉 스님이 1927년 12월 8일~1928년 1월 3일(21일간) 통도사 극락암에서 출·재가자를 대상으로 연 것이 최초이다.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진리에 대한 간절한 마음모아 선·교·율의 큰 스승들을 모시고 문수보살의 지해와 보현보살의 실천, 선제동자의 금강과 같은 구부의 마음을 배우고 이 공덕으로 못생명들이 정도에 왕생하기를 발원하고자 화엄산림법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055)382-7182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화엄산림법회 일정표

날짜	법사	법문품	날짜	법사	법문품
11/25(금)	원명 스님(영축총림 방장)	입재법문	12/10(토)	우진 스님(前 통도사 강주)	불승도술천공품
26(토)	도일 스님(송광사 율원장)	화엄경 헌담	11(일)	월마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심회향품1-5
27(일)	수진 스님(해인정사 주지)	세주요법품	12(월)	덕문 스님(통도사 율원장)	심회향품6-10
28(월)	지안 스님(조계종 고시위원장)	여래현상품	13(화)	지현 스님(송광사 율주)	심지품
29(화)	재문 스님(정원 내원사 주지)	세계성취품	14(수)	신공 스님(창원 구룡사 주지)	심정품
30(목)	중선 스님(수도암 감원)	화장세계품	15(목)	중진 스님(해인사 율주)	심통품 심인품
12/1(금)	지은 스님(조비전사 주지)	비로자나품	16(금)	원철 스님(前 불학연구소장)	아승지품
2(토)	해거 스님(탄허재단 이사장)	여래영호품	17(토)	각성 스님(화엄사 회주)	여래수양품
3(토)	용학 스님(범어사 강주)	사성제품	18(일)	현진 스님(통도사 강주)	제보살주처품
4(일)	종범 스님(승가대 총장)	광명각품	19(월)	도암 스님(백양사 강주)	불부사의법품
5(월)	수불 스님(한국선원 선원장)	보살명문품	20(화)	해남 스님(통도사 율주)	여래출현품
6(화)	보화 스님(통도사 총무국장)	정행품 현수품	21(수)	성림 스님(통도사 선덕)	이세간품
7(수)	철우 스님(조계종 계단위원)	승수미정상품	22(목)	무비 스님(前 교육원장)	입법계품
8(목)	법산 스님(통도대 명예교수)	수미정상계찬품	23(금)	심산 스님(총부사 주지)	심지품
9(금)	반산 스님(원각사 주지)	오전 월하스님다례	24(토)	원산 스님(통도사 주지)	입법계품
		산수품			회향법문

전북 성지순례길 홍보나서

전북도(도지사 김완주)가 세계 종교지도자들을 초청해 도내 아름다운 순례길을 걷는 세계적 규모의 종교 성지순례행사 '세계순례축제'를 2012년 10월 중 개최한다.



11월 12일 김제 금산사에서 이를 위한 종교성지 순례코스 점검 행사가 열렸다. 행사에는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을 비롯한 지역 스님들과 김완주 도지사, 이근식 김제시장, 원불교 고원선 전북교구장, 천주교 유장훈 몬시뇰 신부, 기독교 박진구 목사 등의 종교지도자와 김수곤 순례문화연구원 이사장 외 전라북도청의 4대 종교회합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아름다운 순례길을 걸으며 각각 다른 종교의 성지를 순례했다. 이들은 각 종단의 대표자들의 의견을 듣고 도의 추진 의지를 전달하는 한편 이웃 종교에 대한 이해와 상생의 방법을 모색했다.

전북도가 2009년 선포한 아름다운 순례길은 세계 유일의 종교간 상생·화합을 위한 길이다. 행사는 순례길을 세계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참가자들이 걷는 코스는 아름다운 순례길 240km 중 제7코스인 김제 금산사에서 수휴성당까지 이어지는 19.7km 구간이다. 이 코스에는 7대종교 관련 20여 개의 전통사찰 지방문화재 신앙촌 등이 산재해 있다.

전북도 김완주 지사는 "아름다운 순례길을 통해 다양한 종교 문화유산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해외 순례객들이 찾는 국제적 순례길로 발전시킬 계획이

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의 아름다운 순례길은 2009년 선포한 이후 현재까지 6만여 명이 방문했다.

2010년도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이아가 있는 문화유산 길'로 선정된 데 이어 2011년도에는 순례길 로고인 달팽이 기념품이 전라북도 브랜드상품 및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할 브랜드 상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순례길에는 30여 명의 길안내해설사들이 순례지점마다의 사연과 지역문화를 전달하고 있으며 최근 청소년 순례객들이 증가하면서 심신건강과 전인적 성격 성장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조동섭 전북지사장

전주 서원노인복지관, '작은 도서관' 개관

전주 시내에 지역주민들과 노인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이 개관했다.

조계종 사회복지법인 금산사복지원이 운영하는 서원노인복지관(관장 보연)은 11월 11일 복지관 강당에서 '행복나눔 작은 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개관식에 앞서 식전공연으로 서원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난타공연과 시낭송, 오카리나 연주 무대가 펼쳐졌다. 개관식에는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 송하진 전주시장, 지역 복지관 관계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작은 도서관 개관을 축하했다.

원행 스님은 축사를 통해 "도서관 개관으로 지역주민까지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들이 "건강을 살피는 것은 물론 문화적 소양도 함께 갖출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개관한 '행복나눔 작은 도서관'은 서원노인복지관 로비를 리모델링해 연면적 209.88㎡(63.6평)의 규모로 4000여 권의 장서와 함께, 열람실, 유아실 등을 갖추고 있다.

조동섭 전북지사장

금산사, 문화재 복합재난대비 합동 실제 훈련

11월 15일, 제386차 민방위의 날에 전국 사찰에서 재난으로부터 우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훈련이 실시됐다.



이날,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도 김제시와 함께 금산사 경내에서 15개 기관 단체 훈련인원 160명과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을 비롯해 심령장 전북소방안전본부장 등 각급 관계기관장 등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문화재 복합재난대비 합동실제 훈련을 실시했다.

행사에서는 금산사 주변 산불 상황에 따라 금산사 자위소방대의 신속한 초기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금산사 30여 관계자가 직접 참여해 관공재 대피유도, 문화재 및 주요물자 반출, 경내로 비화되는 산불 방제 훈련 등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했다.

김제소방서는 20여 점의 소방장비를 전시하고 작동요령 설명 및 시연을 했다. 또, 심폐소생술 교육, 초기 화재 발생시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설명과 체험 등이 실시됐다.

조동섭 전북지사장

오심 스님의 달빛 고운 절에서

성공과 실패의 이유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부처님, 세상 사람에는 제 각기 직업이 있는데 어떤 이는 성공하고 어떤 이는 실패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에만 큰 힘을 쏟는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게 참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해 줍니다.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출가사문으로써 현명한 일인가? 자문자답하고 고민해 봅니다. 그리고 또 산문을 나섭니다. 스스로 현명하든 현명하지 못하든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 고나서야 할 일이라면 주저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리라는 다짐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제가 포교 일선에 뛰어든지도 벌써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결코 길지도 그렇다고 짧지도 않는 세월이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죽음의 사선도 넘어 보았습니다. 그만큼 즐거움도 보람도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격려와 보살핌 덕분이었습니다.

물론 좌절은 준 사람도 여럿 있었지만 수행길에 부딪히는 작은 걸림돌이라 여기고 즐거이 맞았습니다.

포교 현장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구룡사 어린이법회입니다. 어린이포교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서울의 도심포교장인 구룡사에서 당시 어린이포교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던 당시 주지 정우 스님의 뜻으로 어린이법회가 설립·운영됐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7년 동안 어린이 법회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의 포교활동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까지 더불어 포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나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다보니 아이들이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스님에 대한 궁금증을 소상하게 설명하면서 다가서니 아이들이 좋아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세월이 지나 그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어린 후배들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사찰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통도사 하계수련대회 때에는 4박5일씩 교사로서 봉사하기 위해 서울에서 통도사까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뛰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가슴 벅찬 보람의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 들은 부처님 말씀을 인연으로 어른이 되어도 변함이 없이 불자로서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그 모습에서

아! "내가 가는 포교의 길이 험되지 않았구나"라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수행을 제일의 미덕으로 생각하고 포교는 뒷전으로 생각하던 때도 있었습니 다. 더러는 조용한 산사에 아이들의 소리가 시끄럽다고 야단치는 어른 스님들도 계셨지만 지금은 많이 변해서 어른스님들부터 나서서 어린이 포교를 적극적으로 돕고 크게 격려도 해주십니다.

지옥문에서 초조하게 극락을 발원하며 서성이던 지장보살님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부처님 말씀에 귀의할 수 있도록 모두가 포교에 최선을 다합시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시은을 주셨듯이 우리 또한 그 시은에 보답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과 내게 주어진 길이 포교현장입니다.

오심 스님(월봉사 주지, 중앙총회의원)



한국불교대학 노인전문요양원 증축 기공

영남불교대학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노인전문요양원 '무량수전'이 11월 11일 증축공사를 시작했다.

영남불교대학 복지재단은 이날 대구 봉덕동 무량수전 공사현장 앞에서 한국 불교대학 회주 우학 스님과 배영식 국회의원, 임병헌 대구 남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량수전 증축공사 기공식을 봉행했다.

영남불교대학 복지재단은 무량수전 건물 2층 가운데 노후된 1동을 허물고 2012년 10월까지 18억여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600㎡ 규모의 현대화된 새 건물을 건립할 계획이다.

한국불교대학 회주 우학 스님은 격려의원, 임병헌 대구 남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량수전 증축공사 기공식을 봉행했다. 손은철 대구지사장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곱광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향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헨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사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끼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헨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동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위생적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삼베사워타올 (건포마사지)

-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 지지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 완저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삼베세안타올

-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삼베수세끼

-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물샵 |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